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전 국민 1-10-100프로젝트’ 추진 등 국민연금, 올해 중점 추진방향 발표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변화를 이룩해야 할 새로운 도전의 해로 정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완성시켜 나간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의 중점 추진방향으로 ▲모든 국민, 모든 세대에 게 든든한 국민연금 ▲기금 1000조 시대로의 도약과 지속성장 ▲선도적인 ESG 경영 실천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우선 모든 국민, 모든 세대에게 든든한 국민연금이 되기 위해 공단의 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1-10-100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제5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연금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이다.

기금 1,000조 시대로의 도약과 지속 성장을 주도할 운운 인프라를 구축과 관련해서는 기금 성장기를 고려해 투자처 다변화를 모색해 수익률을 키워 나가고 선제적 위험관리 패러다임 구축을 통해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적 연금으로서 ESG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K-ESG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선도적인 ESG경영 실천을 통해 공공기관의 롤모델이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자연(N)과 사람(P)이 행복한 세상(S) 만들기를 경영 비전으로 설정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적극 이행 마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3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을자치연금 지속 확대 ESG공시항목 확대 등 28개의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 해 나갈 것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임직원에게 더불어

일하고 싶은 조직’을 되기 위해 ‘소통’을 일으키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맛 나는 공단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이사장은 “임직원에게 더불어

“따뜻한 금융 통한 상생경영 실천”

전북은행, 올해 추진전략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디지털 경쟁력 제고 등 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3일 코로나19 악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침에 따라 2022년 등 시무식을 비대면 화상회의 형식으로 실시했다.

서한국 은행장은 신년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며, 위기 극복과 변화와 혁신을 통한 보다 강한 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수익성 중심 질적성장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비용 효율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디지털 경쟁력 제고 ▲은행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수익원 다변화 ▲업무편행 및 조직혁신을 통한 지속적 성장 기틀 마련 등을 강조했다.

서한국 은행장은 “JB민의 핵심가치를 키워 나감과 동시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가기 위한 도전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새 시대를 대비하는 시야와 사고를 넓혀 가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통해 상생경영을 실천해 가자”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에너지 안전 이끄는 국민의 KESCO”

전기안전공사, 혁신 성장 위한 새 비전 선포 토론회 열고 ESG경영 전환 등 3대 목표 공유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에너지 안전을 이끄는 국민의 KESCO’를 새 비전으로 선포했다. 정부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공사는 3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박지현 사장과 본사 각 부서장 지역본부장 등 임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 행사를 갖고 경영 활동의 새 청사진을 발표했다.

새 비전에는 전기는 물론 에너지안전 분야 전반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거듭나 생활 속 더 가까이에서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기관으로 도약하려는 공사의 미래 지향점을 담았다. 이를 위해 전략 방향을 ▲설비중심 점검에서 종합적 안전관리로 전환 ▲정보·기술 기반의 예방 플랫폼 구축 ▲고위험·취약분야 집중관리 ▲고부가·고품질 안전관리 중심 사업운영으로 설정하고 공익적 역할을 넓혀 종합 에너지안전관리 기관으로 나아가길 계획이다.

비전선포식에 이어 이날 공사는 전국 사업소장들과 함께 혁신 성장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효율강화, ESG경영 전



환, 성장주도 등 혁신성장 3대 목표와 원격점검체계 전환, 전기안전종합정보 시스템 고도화 등 30대 과제에 대한 공유와 함께 증대해 처법법과 원격 점검 체계 도입, 22년 사업전략 등 다 양한 현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지현 사장은 “새 비전 선언을 계기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물론 정부의 에너지 안전 정책을 선도하는 파트너로 더욱 책임 있는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농촌 구현 위해 땀 흘릴 것”

이재연 신임 NH농협 정읍지부장 취임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 이재연(53) 신임 지부장이 2일 취임했다.

이재연 지부장은 정읍시 칠보면 출신으로 전주 영성고와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농림수산부장관 표창(2회) 비롯하여 농협중앙회장 표창 등 공적상을 두루 수상했다.

1993년 농협중앙회 IT 본부에 입사해 농협중앙회 기획실, 농협중앙회상호금융 디지털금융부,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경영기획팀장을 거쳐 정읍시지부장으로 부임했다.

이재연 지부장은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농촌구현을 위해 농가소득 5만원인 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업인 조합원 대상 복지 사업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 지역농업발전은 물론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우리 딸기 현주소 ‘96.3%·18개·1조2270억·4823톤’

수경재배면적 10년 새 10배 이상 늘어



새콤달콤 향긋한 딸기의 계절이 돌아왔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이 겨울 대표 열매채소로 자리매김 한 우리 딸기의 현주소를 숫자로 풀어봤다.

▲96.3% 국산 딸기의 품종 보급률이 2021년 기준 96.3%를 돌파했다. 2005년 9.2%에 불과하던 국내 육성 딸기 품종 보급률은 2010년 61.1%로 외국 품종을 역전한 이후, 2015년 90%를 넘어 2021년 9월 역대 최고치인 96.3%를 기록했다.

▲18개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국산 딸기는 18개 품종이다. 점유율 1위(84.5%)는 충남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에서 개발한 ‘설향’이다. ‘설향’은 당도 10.4브릭스(Bx)에 과실이 크고 수량이 많다. 또, 흰가루병에 강하고 과즙이 풍부해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선호하는 품종이다. ‘설향’의 보급률이 압도적이지만

다른 품종의 도전도 거세다. 점유율 2위는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금실’로 당도는 11.4브릭스이고 열매가 단단해 내수와 수출이 가능한 품종으로 평가받으며 재배가 늘고 있다.

3위 품종은 담양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축향’으로 당도는 12.8브릭스이고 품질이 좋다. 4위는 맛과 유통성이 우수해 수출용으로 재배되는 ‘배향’이다.

▲1조2270억원 현재 딸기의 재배 면적은 5,683헥타르(ha), 생산액은 1조 2,270억 원에 이른다. 2005년 6,457억 원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딸기 생산액은 15년 사이 1.9배 늘었다. 전체 채소 생산액(약 11조2,000억원)의 10.9%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채소 작물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과거 토양에서 재배했던 딸기는 이제 수경재배로 전환되는 분위기이다.

10년 전 토양재배와 수경재배 비율은 97.4% 대 2.6%(184헥타르)였

지만, 현재 토양재배는 64.5% 수경재배는 35.5%(2,018헥타르)에 이른다.

▲4,823톤 딸기는 수출 효과 품목이기도 하다. 2020년 기준 딸기 수출량은 4,823톤, 금액으로는 5,374만 7,000달러(약 637억 9,700만 원)였다. 2005년 수출액이 440만 6,000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15년 사이 약 12배 증가한 셈이다. 주요 수출 품종은 ‘금실’, ‘배향’ 등이고 주요 수출국은 홍콩,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다.

농진청이 지난해 12월 10일 온도 습도를 비롯해 산소, 이산화탄소, 에틸렌 등 대기 환경을 조절하는 시에이(CA, Controlled Atmosphere) 컨테이너에 딸기 약 1,500kg을 실어 홍콩으로 시범 수출한 바 있다. 수송기간이 2주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실’, ‘하리향’의 품질이 유지돼 현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홍콩 수출업체(한인홍) 인제화 대표는 “CA 저장 기술 덕분에 우리 딸기의 우수한 품질을 홍콩시장에 알릴 수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한국의 농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CA 컨테이너 도입으로 우리 농산물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딸기를 재배하는 김제금실작목반 류필영 씨는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하는 다양한 신품종이 개발돼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신임 정규일 건협

전북지부 본부장 취임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이하 건협 전북지부)는 제24대 본부장에 정규일 본부장이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

정 본부장은 1996년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입사해 경북지부 사업관리부장 및 운영관리부장, 본부 감사부장, 인천지부 사업관리부장 및 운영관리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며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05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정규일 신임 본부장은 “근거중심의 정확한 검진과 다양한 의료 서비스로 고령화 사회를 견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가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전북농원, 28일까지 의심업체·통신판매업체 집중 점검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세트, 밤·대추·사과·배·육류 등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문태섭 이하 전북농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3일부터 28일까지(28일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북지역 특별사법경찰관 22명을 투입해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선물세트(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세트 등)와 제수용 농축산물(밤, 대추, 육류 등)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전북농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사전 발굴하는 등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 물,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징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공표한다.

설 명절에 사용할 선물세트, 제수용 농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 원산지 구별 방법이 궁금한 소비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북농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가 신고한 건이 원산지 위반 등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5~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대희 기자

스마트팜 농장에서 새해 첫 현장 경영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이 3일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오색오감’ 스마트팜 농장경영주 윤지성을 방문하며 임인년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오색오감 농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하고 농협은행의 농업금융컨설팅 자금을 기반으로 지난 2020년 창농을 한 젊은 여성농업인이 무농약 친환경 농법으로 딸기와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스마트팜 농장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정 본부장은 스마트팜 창농 과정과 운영·판매에 관한 어려움, 극복과정 등 농업경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보급형 스마트팜 보급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윤상 기자

정재호 본부장은 “농업은 무궁한 발전이 가능한 영역으로, 전북의 경우 김제에 전국 최초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준공되고, 농협에서도 지난해 농협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해 올해는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북농협은 창업농들이 더 쉽게 전북에서 스마트팜으로 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북농협은 스마트팜의 지역 내 보급을 위해 행정, 학교,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의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전북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는 등 스마트팜 추진에 있어 농협의 역할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인 스마트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